건설기계업자 밥그릇 싸움에 영세건설사 '몸살'

민주노총건설노조·광주시연합회 경쟁
중장비 단독사용권 요구 작업현장 시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 사용문제를 놓고 건설기계업자들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역 영세건설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소속 단체의 중장비 단독사용권을 요구하면서 현장 시위는 물론, 업무방해와 물리적 충돌까지 일삼고 있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올해 광산구가 발주한 원임곡 외 6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과 관련, 시공사로 선정된 지역 7개 건설사에 노조 명의로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광주시연합회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두 단체의 요구는 해당 단체와 건설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단체가 소유한 중장비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건설사들이 보유 장비사용을 이유로, 수차례 교섭에 응하지 않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는 시공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7개 건설사 사옥에 집회신고를 낸 뒤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작업이 진행중인 현장에 단체로 몰려가 공사를 방해하고 작업중인 근로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전국건설기계 광주시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민주노총 노조의 시위에 반대시위를 벌여 두 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도 있었다.

결국 7개 시공사 가운데 4개 업체가 이들의 압박에 단체협약을 맺자, 이번엔 전국건설기계 광주시연합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단 이기주의로 일감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700여 명이 참여해 민주노총 노조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광주지역 중장비 업자 가운데 20%에 불과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비노조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 3월14일자 7면〉

하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여전히 압박을 진행했다. 건설사 사옥 앞에 20명씩 몰려와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설사에 소속 단체의 중장비 사용을 강요했다.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건설사들은 잇따른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에 주민들의 민원 감수는 물론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 건설사는 참다 못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A건설사 관계자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권리만 주장해 단체협약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협약을 맺을 경우, 장비대차권한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만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단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사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업무방해가 계속될 경우 건설협회 차원의 대응을 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1일 효성 마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GWP 선포식에서 이상운 부회장(왼쪽)이 타이어보강재PU 권기수 부사장(오른쪽)에게 GWP 선언문을 수여하고 있다.

효성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 선포

GWP 활동 시작…조직문화에 새바람

효성은 21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GWP(Great Work Place) 선포식'을 열었다.

이상운 부회장은 이날 "일하기 좋은 일터는 신뢰와 자부심, 팀웍과 재미를 바탕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임직원에게 돌려주는 곳"이라며 "GWP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GWP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근무 만족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부별로 GWP 활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효성은 지난달 GWP를 실행할 '기업문화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업문화 전담팀의 주도하에 GWP 활동을 실행해 나갈 각 사업부별 40명의 에이전트를 선발했다.

이와함께 효성은 '효성의 상'의 상금을 대폭 늘리고 포상기회를 확대했으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하는 '리프레쉬 데이', 월 1회 취미활동을 하는 '펀데이' 등의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62개中企 수출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은 21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네오마루㈜ 등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세부사업과 수출입간 상시 노출되는 환위험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수출확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중기청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7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62개사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기업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무역제반 실무교육 ▲외국어카탈로그 제작 ▲제품디자인개발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해외마케팅 등 총 20여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2000만~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90%(기업부담 10~50%)를 지원한다.

지난해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은 전년 수출실적 대비 41% 증가한 3200만 달러로 나타나는 등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4000만원대 스마트 TV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매장에서는 중형차 한대 값에 맞먹는 4000만원대 초대형 스마트 TV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출시된 TV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85인치 초대형으로 불황 속에도 혼수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름값 20% 낮춘다

일반인 주식 공모 1200억 약정…국민석유회사 출범

기름을 일반 주유소보다 20% 싸게 파는 주유소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회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열고 법인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석유회사는 발기인 1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각 지역 준비위원회공동대표와 준비위원 중 창립분담금을 낸 발기인을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들은 내달 초 법인 등록 절차를 마친 후 5월 중순 일반인 주식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석유회사는 지난해 6월 준비위원회를 꾸린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인 1주 갖기 약정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약정액 1200억원을 모았다.

국민석유회사의 목표대로라면 현재 ℓ당 20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까지 떨어진다. 캐나다·시베리아 등에서 값싼 저유황 원유를 도입·정제하고, 휘발유·경유를 뽑아내는데 쓰이는 촉매제를 국산화해 원가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다 하더라도 5000억원으로는 정제시설 설립이 불가능할뿐더러 캐나다에는 해상 운송시설이 없어 원유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전남농어촌공사 부채농가 회생 365억 투입

70% 이상 상반기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1일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365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의 재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부채가 3000만원이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총 365억원의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중 상반기에 사업비의 70% 이상 집행해 신속한 농가 회생재건을 돕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는 것이다. 매입농지 등은 저렴한 임차료(매입가격의 1% 이내)로 7~10년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금융·공공기관 부채 3000만원 이상이면서 농업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은 3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매입상한가는 1㎡당 6만원이다.

전남본부는 지난 7년간 농가 889곳에 17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 농가의 재기를 도왔다. 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맞춤 경영회생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김행윤 본부장은 "농촌, 농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50.82 (-8.59)	544.56 (-1.70)	2.59% (-0.01)	1115.70원 (-0.40)

광주은행 주주총회…주당 403원 배당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1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0층 이사회실에서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송 행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은행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1364억원을 시현했으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 대통령 표창, 다산금융상 수상, 대한민국 금융대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광주은행의 위상을 드높인 해였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4기(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그 결과 당기순이익 1364억원과 주당 403원(배당률 8.05%)의 배당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태기(57·전남대 경영대학장)씨와 문종안(67·전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시를 사회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